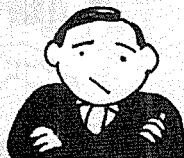




간염의 원인



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간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의 결과로 간세포가 파괴되어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염은 임상 특성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약물중독성, 알코올성 등으로 분류한다.

1. 급성간염

여러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경우이다. 다음이 약물에 의한 경우이며, 알코올·면역장애에서 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 또한 원인을 찾기 어렵거나 선천성인 경

우도 드물게 나타난다.

가. 간염바이러스

1) A형 간염바이러스

주로 음식물 오염에 의해 경구적인 경로로 체내에 침입하게 된다. 이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파괴를 일으키고 대변을 통하여 체외로 배설된다.

배설된 바이러스는 적절한 조건 속에서 살아남아 음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A형 간염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되면 혈액 내에는 항체가 형성되며, 이 항체는 장기간 또는 평생 몸속에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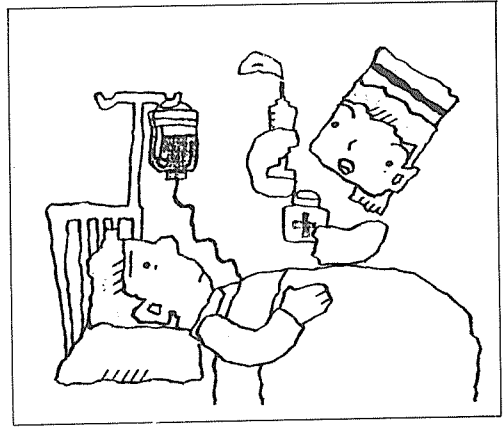
2) B형 간염바이러스

B형 간염바이러스는 급성간염을 앓고 난 후에도 체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 만성 보균자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이 감염원이 된다.

감염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통하여거나 분비물 즉 눈물, 타액, 정액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염되는데 수혈이나 주사침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 균을 가진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태반이나 산모의 혈액 또는 접촉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B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데, 표면항원에 대해서는 표면항체가 형성되고 체항원에는 체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항원의 발현시기를 보면, 감염이 된 후 일정기간 잠복기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나기 조금 전에 표면 항원이 나타나고 곧이어 체항체가 나타나며, 회복기에 들어서면 표면항체가 생성되면서 표면항원이 소실되는 것이 보통의 경과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표면항체



가 생성되지 않아 만성 보균자로 이행되기도 한다.

표면항체나 체항체는 장기간 지속되거나 평생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혈청에서 체항체가 발견되면 B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과거에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표면항체가 있으면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B형 바이러스의 감염에 저항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면항원이 양성인 경우나 표면항원 및 체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보균자라고 생각하면 틀림 없다.

3) 비A비B형 간염바이러스

말 그대로 A형도 B형도 아닌 형으로서 감염경로나 증상이 B형과

B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 눈물, 수혈, 주사침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형태를 지니지만 바이러스의 종류는 전혀 다르다.

주로 수혈에 의해서 전파되며 환자나 보균자와의 가까운 접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 이 형은 B형에 비해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잠복기는 A형과 B형의 중간정도이다.

나. 알코올

술에 의한 간손상은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변으로 분류하는데, 이중 알코올성 간염은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아니다.

대개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은 지방간이 가장 많으며, 알코올성 간염은 다량의 술을 장기간 마셔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간경변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때로는 이병 자체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다. 약물

간의 대사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대사하여 체외로 배출하거나 해롭지 않은 물질로 분해·처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흡수된 모든 약물



은 간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약물에 의한 간 손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상태이다.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약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흔히 보는 것으로는 항생제 및 항결핵제, 해열진통제 또는 홀몬제 등이 있고 특히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제에 의한 간염도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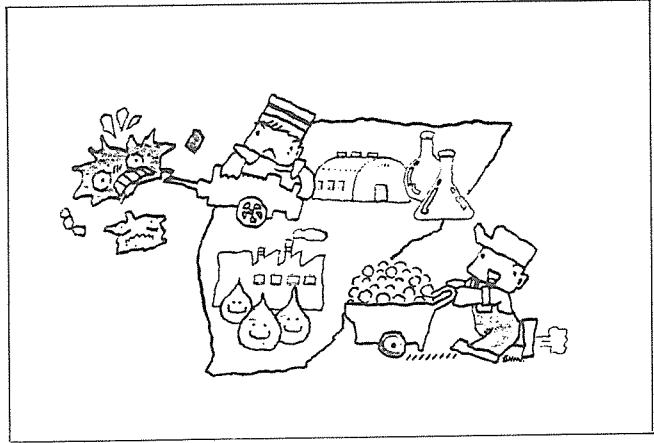
2. 만성간염

만성간염은 6개월 이상에 걸쳐 간염의 증상과 간기능 장애, 간조직 염증 등이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간염이 완치되지 않고 장기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병태 생리학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간의 조직 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상태로

술에 의한 간 손상은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으로 분류한다.

만성간염은
6개월 이상 동안
간염증상과
간기능장애,
간조직 염증 등이
계속되는 상태



변하여 간경변으로 이행하지만, 만성 간염은 아직 그러한 상태에는 도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간의 염증으로 인하여 간세포가 파괴되고 섬유화가 형성되는 상태를 말한다.

만성간염은 활동성 간염과 지속성 간염으로 구분되는데 지속성 간염은 임상적으로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검사상 약간의 이상 소견을 보이거나 치료가 필요없다.

그러나 활동성 간염은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병이 진행될수록 병리적으로 염증의 부위가 간세포 부위로 확산되고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치료와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질환이다.

만성간염은 주로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A형 바이러스는 급성간염만 일으킬 뿐 만

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없고, B형과 비A비B형은 많은 수에서 만성으로 이행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보균자가 많아 대부분의 만성 간염은 B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지만 B형 바이러스의 보균율이 낮은 선진국에서는 비A비B형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염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산모의 B형 간염바이러스의 보균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태아의 간염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는 특히 만성으로 이행되는 율이 높다.

간염 바이러스 이외에도 간혹 약물에 의해 만성간염이 발병될 수 있으며, 원인불명인 경우도 있다. [23]